

마니샤 구나세케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 특별 기고

“스리랑카와 한국은 금년에 정치, 경제 등 양자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스리랑카와 대한민국은 몇 세기 동안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역사적인 유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1977년 스리랑카와 한국간 외교수립 이래로 양자간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외연을 확장 해왔습니다. 고위급

방문과 관련하여 2012년 4월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방한하였고, 2013년 8월에는 한국 총리가 스리랑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현재 2017년 두 나라의 외교수립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5년에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과 나님 위크레메싱에 총리의 취임 이후 새 정부 수립에 따라, 한국과의

친밀한 양자관계를 특히, 정치, 경제면서 더 강화하고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2016년과 2017년에 외교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급 교환방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다음 회담은 올해 콜롬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스리랑카는 1인당 GDP US\$ 3500인 중저소득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6% 이상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새 정부는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고, 세계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식 경제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적 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적 연대를 더 확장시켜야 할 주요 국가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국을 양자간 특혜무역협정(PTA) 혹은 미래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에 무역과 투자 잠재력을 조사하는 초기 공동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자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스리랑카와 한국간 공동 실무진(JWG)을 만들기로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 관세협정, 기술이전, 수입관련 규제사항과 같은 무역장벽 철폐 추진 그리고 무역, 투자, 관광 진흥을 위한 조치 같은 중요한 분야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리랑카의 가장 중요한 외국인 직접 투자국(FDI) 중에 하나입니다.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스리랑카에 소재한 70개 이상의 한국 회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제품/전기 설비, 전자공학, 물류, 선박 제조 및 수리,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구역 개발, 농업 및 농업기반 상품, 어업, 고무 기반 산업, 섬유 산업, 관광 및 여가 산업,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이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와 인도, 파키스탄 간의 FTA는 이러한 시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올해 Kandy에 정보, 농업기술 구역을 설립하였고, 11개의 비즈니스 기술개발 구역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의 투자를 이를 아낄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외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외환 관리법(FEMB)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와 한국 양자간 무역은 현재 대략 US 487 백만 달러로 작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대(對)한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이며, 이는 전체의 34%를 차지합니다. 스리랑카는 의류, 실론티(스리랑카는 차로 유명합니다.), 고무 및 고무 기반 상품, 향신료, 그리고 보석의 주요 수출국으로, 한국 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또한 세계 시장에서 시나몬 공급률의 85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은 6번째로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51년 9월 3일에 중산종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989년 정치계에 뛰어들었고, 1994년 이래로 정부 요인으로 활동하였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스리랑카 자유당(SLFP)의 대표이며 가장 오랫동안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1월 8일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더 나은 정부와 스리랑카의 경제적 번영을 지향하는 시름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선출된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오늘날 정치 풍토에서 보기 드문, 폭력과 부패에 때묻지 아니하고, 훌륭을 데 없으며, 신사적인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농부의 아들이면서, 스리랑카 정치 문화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중도정치, 깨끗한 정치를 실시한 리더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법치주의에 근거하고, 공명정대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프로그램, 즉 근면, 자조, 협동에 근거한 새마을 운동은 스리랑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스리랑카의 두 시범 마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지역에 더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빙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식량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 재활성화, 이를 시장에 연결하는 새마을 원칙 통합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리랑카 농림부 장관은 2015년 11월 대구에서

열린 글로벌 새마을 리더십 포럼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 국방, 그리고 문화 관계와 같은 분야에서 두 나라간 관계 강화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양자 협정을 시작하거나 강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POP은 스리랑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고, 서로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은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의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마니샤 구나세케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좌로부터 2번째)가 에릭 스완손 밀레니엄힐튼 호텔 총지배인 내외(우로부터 첫번째와 두번째) 그리고 이경식 코리아포스트 발행인 겸 회장(맨 죄측) 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발행인 칼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시장개척 지령 31년의 영문 코리아포스트가 지원

지난 1월 5일 서울에서 열린 ‘2016 KOTRA 세계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서 김재홍 KOTRA 사장은, “저유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환율 경쟁 등 다양한 부정적 여건 속에서 ‘4년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난해에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다음, “특히 2016년 올해는 경쟁국과의 치열한 ‘핵심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올해 기업이 염두에 두어야 할 3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첫째, 혁신 상품과 고급 소비재로 미국과 중국, G2시장을 공략해야 하고, 둘째, 신흥국의 경우 단순 상품 수출 방식에서 제조·판매·수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략을 다각화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베트남 같은 신규 FTA 발효국이나 이란, 쿠바, 미얀마 등 전략 시장, 그리고 동유럽과 ASEAN 같은 기회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 이들 나라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공략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거래 관계를 맺기를 처음에는 대단히 끼려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기 싫어 망서린다는 얘기다.

그래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우선 자기들을 파트너 대상국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에는 총 111개국의 상주 대사관이 있고 그들 중 상당 수 국가들은 별도로 무역대표부나 상무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나라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거나 자국에 투자 하기를 원하는 한국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외 진출 또는 수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 나라들의 대사, 상무관사 또는 무역 담당관에게 자신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브리셔나 홍보영상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신임하는 영문 매체를 통해서 기업을 정확히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을 지령 31년의 ‘코리아포스트’가 해오고 있다.

(주)코리아포스트는 지난 31년간 영문 3개(www.koreapost.com) 그리고 국문 2개(www.koreapost.co.kr)의 인쇄 및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매체들은 청와대를 위치하여 정부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우리나라의 각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각각의 최근 동향을 위에서 소개된 세계 111개국 대사관과 같은 수의 주재 대사관 그리고 주요국의 무역대표부 등에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코리아포스트 국문판 본지는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인터넷판(http://pdf.koreapost.co.kr/12/1201.pdf)으로 국내 뉴스는 물론 각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나라의 최신 정보를 20쪽의 지면으로 실시간 보도하고 있다. 자국의 뉴스를 실시간 보도해주는 코리아포스트의 국문판을 주한 각국대사들은 자기들의 매체와 같이 아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사제작 문의: Tel 02-2298-1740~2, Fax 02-2298-9506

창사 30

구독 및 광고·기사제작 문의

Tel 02-2298-1740/2 www.koreapost.com



발행인 겸 회장
이경식

스리랑카의 이모 저모

스리랑카 국경일
 올해는 스리랑카 독립 68주년입니다. 영국으로부터 1948년 해방이래로 2월 4일을 스리랑카 독립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국기 게양식부터 춤 공연, 퍼레이드, 그리고 공연들로 독립을 축하합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2월 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국경일 행사를 진행하고, 2월 7일에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가. 서울 푸드 2016, 2016 고양 국제꽃 박람회, 2016 전주 국제 밤식품 박람회, 그리고 보석 박람회 2016과 같은 무역 박람회에 스리랑카가 참여한 것이다.

나.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16 국제 로터리 회의에 경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 서울에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31번째 한국 국제 여행 박람회에 스리랑카 관광진흥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B2B 프로모션들이 있다.

위와는 별개로 실론 상공회의소는 스리랑카 개발전략국제무역부, 외교부, 스리랑카 투자청, 스리랑카 수출개발청과 스리랑카 컨벤션뷰로(SLCB)와 협력하여, 스리랑카 투자사업회의 2016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콜롬보 시나몬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한국경제 대표단의 참가를 기획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주요 관광지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는 수려한 자연경관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과리다이

스로 가는 길목인 스리랑카는 사람들의 눈과 영혼을 매혹시키는 인도양과 영원한 신비로움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채로운 역사의 산실이다.

전성기 시절의 아름다운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은 스리랑카 풍습 및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이는 오늘날 잘 어우러져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형형색색과 강렬한 과거를 가진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방대한 건축물들과 박물관, 미술관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역사는 전해의 자연과 더불어 스리랑카를 보여줍니다. 굳세고 확고한 풍경은 사람들의 경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Kandy와 Nuwara Eliya와 같은 고저 지형 지역은 인도양의 무지개빛 장관과 비옥한 토지를 볼 수 있어, 즐거운 관광거리를 제공한다.